



18일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대한민국 대 스웨덴의 경기에서 김민우(12)가 스웨덴의 빅토르 클라손을 수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승 후보’ 독일 패배... 더 험난해진 한국 16강행

‘혼돈의 조 F조 16강 계산 복잡

신태용호, 멕시코·독일 무조건 이겨야 16강

무경을 연 ‘F조’는 예상을 뛰어넘은 ‘혼돈의 조’가 됐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계산이 복잡해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전차 군단’ 독일,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북유럽의 ‘북병’ 스웨덴과 함께 F조에 묶여 10년

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랐다. 최악대로 좁혀온 한국은 조별리그 첫 상대인 스웨덴과 ‘대회 2연패’를 노리는 독일과 맞붙었다. 스웨덴은 그나마 한국이 ‘해볼 만한 상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온 팀. 반대로 독일은 일방적인 질주가 기대된 강팀이었다. 한국은 스웨덴전에서 ‘통쾌한 반란’을

위한 불을 지피고, 멕시코전을 통해서 2위 자리를 넘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전제조건은 독일이 3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악재가 발생했다. ‘우승 후보’로 러시아에 입성한 독일이 F조 경쟁의 서막을 알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0-1 패를 기록한 것이다. 1점 차 패배로 끝난 게 다행일 정도로 독일은 멕시코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독일은 2002 한일월드컵에서 사우디아

라비아에 8-0 대승을 거두는 등 지난 7차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화려한 화력을 과시하며 전승 행진을 했다. 하지만 이번 첫 경기의 모습은 달랐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5승 5무 2패로 앞서 있던 독일은 멕시코에 무릎을 꿇었다. 독일이 조직적인 패스로 압박했지만, 멕시코는 빠른 속도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역습으로 맞불을 냈다. 그리고 후반 35분 멕시코의 이르빙 로사노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강한 슈팅을 날리며 독일의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를 넘어 골대를 뚫었다.

이후 독일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오히려 멕시코의 역습이 더 눈에 띄었다. 그리고 독일의 후반 17차례의 슈팅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전차 군단’의 독주를 기대했던 한국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여기에 한국은 2위라는 목표로 가는 데 ‘필수조건’이었던 스웨덴전 승점 확보에도 실패했다. 18일 조별리그 첫 상대로 만난 스웨덴과의 승부에서 한국은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남기지 못하면서 0-1 패를 기록했다. 부상 악재 속 ‘깜짝 기용’으로 눈길을 끈 조

현우(대구)의 선방쇼만 남은 경기였다. 스웨덴도 무던 움직임의 한국을 상대로 승점 3점은 챙겼지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첫 경기 패로 이를 악문 독일이 두 번째 상대인 스웨덴(24일 오전 3시)을 기다리면서 F조의 순위는 요동칠 전망이다. 한국은 연승에 도전하는 멕시코에 이어 1위 목표에 비상이 걸린 독일과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됐다. 호재로 생각했던 대진에 예상치 못한 F조의 ‘첫판’ 결과에 따라 악재가 되고 말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독일도 디펜딩챔피언 징크스에 우나

조별리그서 멕시코에 0-1로 져...33년만에 1차전 패배

‘전차군단’ 독일이 멕시코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직전 대회 우승국의 부진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독일은 18일(한국시간)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졌다. 2014년 브라질 대회 우승국인 독일은 월드컵 역사상 56년 만의 2연패에 도전장을 내고 러시아 땅을 밟았다. 1930년 시작한 지구촌 최대 축구잔치 월드컵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이탈리아(1934·1938년)와 브라질(1958·1962년), 2개국뿐이다. 브라질 이후로는 2014년 대회까지 52년 동안 한 나라가 연속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달콤한 열매 때문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집중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정상에 자리를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승은커녕 망신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199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한

프랑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프랑스는 단 한 골도 못 넣고 세 골을 내주면서 1무 2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일찌감치 짐을 썼다. 전 대회 우승팀이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한·일 월드컵 우승국 브라질은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8강에서 프랑스에 0-1로 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독일에서 정상에 오른 이탈리아는 4년 뒤 남아공 대회에서 2무 1패로 한 경기도도 거두지 못하고 8년 전 프랑스의 길을 그대로 걸었다. 남아공 월드컵 우승은 스페인이 차지했다. 하지만 스페인 역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에 1-5로 대패하는 등 1승 2패로 조별리그 3경기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스페인은 1950년 이탈리아(1승1패), 1966년 브라질(1승2패)을 포함해 직전 대회 챔피언으로서 1라운드에서 탈락한 다섯 번째 사례가 됐다. /연합뉴스

멕시코 골 터지자 인공지능 ‘흔들’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독일-멕시코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멕시코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이르빙 로사노의 골은 조국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지축을 흔들만큼 국민적인 환호를 받았다. 멕시코의 지진관측 기관인 심사(SIMMSA)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32분 멕시코 시티에 설치된 최소 두 개의 지진 센서에서 인공지능이 감지됐다”라며 “멕시코의 골이 터지는 순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발을 굴러서 생긴 인공 지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감지된 시간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 멕시코-독일전에서 멕시코의 로사노가 결승골을 터트린 순간과 일치한다. 멕시코시티의 인공지능은 칠레에서도 감지됐다. 칠레 지진관측 기관인 ‘시스몰로지아 칠레’(Sismologia Chile)도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가 독일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시간에 인공지능이 관측됐다”라며 “팬들이 득점을 기뻐하면서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독일-멕시코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멕시코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국제축구연맹 순위 1위인 독일을 상대한 멕시코는 전반 35분 역습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패스 연결에 이은 로사노의 득점으로 ‘전차군단’을 침몰시켰다. 멕시코시티에서 경기를 지켜본 멕시코 국민은 로사노의 득점 순간 환호가 절정에 달하면서 일제히 발을 구르고 점프해 인공지능이 낳다는 게 ‘심사’와 ‘스스모로지아칠레’의 공통된 분석이다. /연합뉴스

‘해트트릭’ 호날두 월드컵 첫 득점왕 도전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첫판부터 해트트릭을 터트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개인 첫 월드컵 득점왕을 향해 출격한다.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FIFA 랭킹 4위)은 20일 모로코(41위)와 조별리그 B조 2차전 경기에서 나선다. 포르투갈은 16일 스페인과 1차전에서 3-3으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당시 패색이 짙었던 팀을 구원한 선수가 바로 에이스 호날두다. 호날두는 전반 4분 페널티킥으로 이번 대회 첫 득점을 거둔 뒤 전반 44분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그리고 2-3으로 끌려가던 후반 43분 그림 같은 프리킥 골로 해트트릭에 성공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34번의 해트트릭으로 이 부문 리그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인 호날두도 처음 경험하는 월드컵 해트트릭이다. 호날두는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각각 1골씩만 넣는 데 그쳤다. 월드컵 득점상이 공식 제정된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이후 단일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의 호나우두(브라질 8골)였다. 나머지 대회에서는 6골만 넣어도 득점왕에 올랐다. 2006년 독일 월드컵(미로슬라프 클로제)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토마스 뮐러)만 5골로 득점왕이 결정됐다.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둔 포르투갈과는 달리,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란에 0-1로 일격을 당한 모로코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에 나선다. 양 팀은 이제까지 한 번 맞붙어 모로코가 승리를 거뒀다. 러시아(70위)와 이집트(45위)의 조별리그 A조 경기는 무함마드 살라흐(이집트)의 출전 여부가 변수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살라흐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어깨를 다쳐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집트 감독은 “러시아전에는 나설 것”이라고 말했지만, 살라흐는 혼자서는 유니폼을 입기 힘들 정도의 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는 0-1로 패한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다. 공격에 마침표를 찍을 살라흐가 있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합뉴스